

# 민주 경선 막판까지 파열음

손학규·김두관 “짜여진 각본 탓” 지도부 불신 극심

상당수 의원들 “단합·쇄신” 강조 불구 후유증 클 듯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대회전을 앞두고 파열음이 터져 나오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손학규, 김두관 후보는 당 지도부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만들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경선 이후, 극심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손 후보는 서울과 경기지역 모바일 투표를 하루 앞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로 무난하게 간다면 대선도 무난하게 질 것”이라며 “짜여진 각본, 오만과 패권의 시나리오의 끝은 12월의 통곡 뿐이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시 살 수 있는 변화와 승리의 길을 찾았다. 경기도와 서울에서 승리의 흐름을 뒤집어”고 주장한 뒤, 시인 윤동주의 ‘십자가’를 인용 “물을 끓고 죽지 않았다. 민주당을 위해 모자를 드리우고 꽂처럼 피어나는 꾀를 험리겠다”고 의지를 다렸다.

손 후보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총이 왜 열렸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룰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단합하고 해서 단결이 되었느냐?”며 “우리는 유신시대 종화단결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고 지도부를 성토했다.

“당 지도부에 제가 기대하는 바는 없다”고도 했다.

문재인 후보의 쇄신론에 대해 그는 “유체이탈 화법이다. 누워서 침뱉기”라며 “쇄신하려면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해찬은 용도폐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관 후보도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경선 과정을 통해 기득권 정치가 워낙 견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밝혔다.

고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김 후보는 “경선 룰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수용을 해서 좀 더 납득할만한 룰을 만드는 게 맞는데 당 지도부와 선관위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당 지도부나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게 프리미엄을 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 9일 세종·대전·충남 경선에서는 일부 후보자 지지자들이 지도부를 향해 날계란과 물병을 던지는 등 당내 혼란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쇄신과 단합을 강조했으나 조경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경선 이후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이 막판으로 갈수록 후보자와 지도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경선 이후,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입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11일 오후 경기 부천시 오정동 경인방송(O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원쪽부터 문재인,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후보.

“인혁당 평가, 관련자 증언까지 감안해야”

‘요지부동’ 박근혜 역사인식

민주 “묵과할수없다” “유신미화 중단하라” 발끈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1일 유신시대의 대표적 공안 사건인 인혁당 사건 평가 논란과 관련,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판결에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입장에 앞서 ‘역사적 판단 밟으므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제 말한 대로 같은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 여러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역사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 후보의 발언과 관련, “자신도 관련된 유신을 미화하는 행위를 중단해

야 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는 박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법정에서 단죄 받은 유신의 악행을 사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혁당 사건의 당사자인 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아버지 때 피해 당한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부관참시하고 있다”며 “박 후보가 하는 짓을 보면 ‘위안부의 강제동원 흔적이 없다, 고노 담화를 취소하겠다는 그 자작(일본 극우파)들보다 더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이 끝까지 박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 묵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왔다”며 “저는 그 최종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신시대의 대표적 공안 사건인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언급한데 대해 김 후보자는 “원래 인혁당 사건의 판결과, 재심에 대해서 한 판결 등 두 가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두 개의 판결이 있는 게 아니고,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에 잘 못된 판결이 났고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그 점에서는 최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사청문회 나온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

“인혁당 사건, 최종 무죄 판결이 힘력”

국회 인사청문회 특별위는 11일 야당 일부 헌법재판관 후보로 민주통합당에 의해 추천된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 등 적격성을 검증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김 후보자가 광주 31사단 검찰관이었던 점을 거론, “군 생활하면서 상을 3번이나 탔다. 상 탈 정도로 열심히 군부정권에 협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31사에 근무하다가 5·18 항쟁이 일어나면서 법무사를 겸직하고 재판을 맡았다. 군 검찰관으로서 민간 검사, 군의관, 민간 의사들과 함께 검시에 참여했다”고 밝혔으나 수상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군인에게 주는 상이고 그의 다른 상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인혁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 최민희 의원으로부터 “2007년 재심이 청구됐는데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는 질문을 받고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민주 대선주자들 “안과 단일화, 민주당 중심으로”

문재인-안철수 양자대결

오차 범위내 文이 앞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 “민주당 중심의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0일 오후 대구MBC 방송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원장과의 단일화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민주당 중심의 단일화 연대가 돼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후보는 “안 원장을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안 원장이 사회발전과 정권교체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국민과 당원의 축제 속에 경선을 마치고 후보를 만들 때 안원장과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이 중심을 갖고 대선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어야 안 원장을 안고 박근혜 후보를 뛰어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안 원장을 극복하고 민주당 후보가 아ян단일화 후보가 돼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출금리: 연5.5% ~ 대출금액: 1,000만원~8,000만원

##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 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예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부채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600만원  
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45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본 실제 사례입니다.  
부채리모델링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 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금태섭 변호사 “정준길과 평소 연락하는 사이 아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의 금태섭 변호사는 10일 안철수 대선 불출마 협박 의혹과 관련해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장이 친구 사이의 사적인 대화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학) 동기지만 평소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이 서교동 사옥에서 주최한 인터뷰에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없었고,

2010년 이후 (정 전 공보위원과 관련해) 받은 문자메시지도 단체 메시지 두 통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체 문자메시지 내용은 “정준길이 4·11 총선 출마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출판기념회 개최를 공지하는 문자메시지, 그리고 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변호사 정준길’이라는 문자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 전 위원이 개인적 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언론에 알려진 것이 전부”라며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의 공식직함을 가진 사람이 얘기한 것”이라고 설령 진해도 그 내용은 친구사이에 할 수 있는 전화가 아니었다. 정준길 위원이 친했네 말았네라고 공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경매투자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         |        |
|---------|--------|
| ■ 공증문서  | ■ 대여금  |
| ■ 법원판결문 | ■ 운송료  |
| ■ 각종채권  | ■ 구상금  |
| ■ 물품대금  | ■ 공사대금 |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료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피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